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서 정 애*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십대미혼모의 삶의 조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임신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임신경험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적 조건과 이것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구성 되는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의 삶의 조건인 가족, 학교, 노동시장, 로맨스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보호와 돌봄의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아버지 폭력, 젠더역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곳이며, 학교역시 삶의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노동시장은 이들로 하여금 개인화된 독립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로맨스 관계를 유지시키는 정서적, 물질 토대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십대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이들이 임신을 의미화 하고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십대미혼모 정책에서의 십대집단 내의 계층적 차이와 이들 삶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십대미혼모, 임신경험, 구성

* 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I 서 론

한국사회에서 십대임신과 출산은 ‘십대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과 결부되면서 청소년의 문제적 섹슈얼리티의 기표로서, 그리고 기존의 정상규범을 흔드는 사회문제로서 간주되어왔다. 십대미혼모 담론에서 십대는 미성년, 청소년이라는 단일한 특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임신은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전제를 벗어나는 일탈 행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혼모담론의 도덕적 관점은 새로운 십대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종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비학생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을 ‘사회인’으로 정체화하는 십대들의 증가는 섹슈얼리티, 임신인식에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중 십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혼모의 33.2%로(여성가족부, 2005), 이들 중 다수가 아이양육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일부가 십대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¹⁾. 최근 저출산 담론, 십대양육모를 지칭하는 ‘리틀맘’ 담론 등 양육미혼모 담론의 증가도 이러한 십대들의 임신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회적 낙인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선택하는가? 십대여성들이 모두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며, 또 모든 임신한 십대여성들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지 않는다. 십대여성들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임신경험은 다르게 구성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임신한 십대여성들이 속한 사회적 조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임신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임신경험은 십대여성의 임신에 대한 의미구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출산과 출산이후 선택의 맥락을 포괄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속한 가족, 학교, 노동시장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맺는 관계가 이들의 임신인식과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색하고, 이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1)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복지혜택을 받은 미혼모 중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은 1998년 7.2%에서 2001년 11%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십대의 미혼모는 1998년 22.9%에서 2001년에는 40.7%에 이르고 있다(김유경외, 2006)

II. 관련연구 논의

십대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미혼모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강조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십대의 성, 임신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십대미혼모의 임신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임신발생 예방과 대책을 위한 연구들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비가시화되었던 미혼모의 경험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임신, 모성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십대미혼모들의 주관적인 임신, 모성경험에 주목하였고, 구체적으로 입양, 양육선택에 따른 모성경험에서의 차이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천혜정, 2001; 김은희, 2003; 한진숙, 2001; 주숙남, 1999). 다음으로는 미혼모발생요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미혼모발생요인 이슈는 그동안 미혼모논의의 단골메뉴였지만,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미혼모관련요인 분석관점이 개인적인 원인론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복합원인론이 중요하게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임신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임신이 개인적 요인과 가정,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청소년들의 가출경험, 피임지식 등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 또래집단의 성적 태도와 규범 등이 임신의 중요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배영미, 2001; 이종화, 2005). 한편 이러한 관련요인 연구는 십대미혼모의 양육 또는 입양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윤미현, 2000). 이렇게 미혼모를 둘러싼 담론의 지평이 미혼모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한편 미혼모가 되는 사회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기존의 미혼모 개인책임론에서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미혼모문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서 여전히 미혼모는 사회적 조건의 피해자로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복잡성과 이것에 대한 미혼모의 행위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미혼모가 임신을 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과 이것에 대한 미혼모의 대응, 저항 등의 미혼모주체의 행위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혼모의 행위성은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일부 연구들은 미혼모의 계급적 요인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임신, 모성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한편 다른 식으로 의미화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Jacobs, 1994).

구체적으로 십대여성들의 계급적 차이는 섹슈얼리티와 임신에서의 규범적 구속력을 다르게 작동시킨다. 즉 노동자계급 소녀들에게 섹스와 임신은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녀들에게 임신은 기존의 젠더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성숙함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McRobbie, 2000). 한편 이러한 임신에 대한 다른 의미구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계급 소녀들은 아이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것을 이후의 자신의 인생경력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반면, 반대로 중산층 소녀들은 모성을 궁극적 실패로 인정하면서 모성을 분리시킨 채 미래의 경력쌓기에 매진한다는 것이다(Walkerdine, 2001).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다수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임신경험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미혼모자시설에 거주하는 15세-19세의 임신한, 또는 출산한 십대여성들이다. 이들은 서울, 수원, 평택, 대전 등 6개 미혼모자시설에 거주하는 십대미혼모로서, 이중 일부는 양육을 결정했거나 양육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나머지는 입양을 결정했거나 고민중인 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계층적 지위는 주관적인 계급인식과 부모직업을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으며²⁾, 이러한 계층적 배경은 이들로 하여금 중학교 시기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중, 고등학교 자퇴, 빈번한 가출, 연애, 동거경험 등과 연결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임신이 대부분 연애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지위에 주목하였다. 파트너의 계층적 지위는 임신한 십대

2)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층이라고 함은 가구주의 직업과 십대 여성의 주관적인 계층인식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직업은 단순 서비스업, 행사, 노점상, 기능직 등 대부분 반숙련, 단순 노동으로서 불안정한 고용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계층인식은 개인 스스로의 계급인식이 그의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시킨 채 계급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구대상인 십대여성들의 주관적인 계급인식과 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였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교제기간은 대체로 6개월에서 3년에 걸쳐있어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은 이 기간 중에 일어나고 있으며, 임신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표1 참조).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이름	나이	면접당시 임신상태	출산후 결정	파트너지위 (나이, 교제기간,상태)	부모 직업	학력	기출 경험	경제활동
1	미수	17	출산 후	입양	모름	부:노동	중2자퇴	5회이상	원조교제
2	상영	17	출산 후	양육중	직업학교 (18세,9개월, 교제중)	부:택시기사, 모 사망	고2 중퇴	50회 이상	생선구이집, 순두부집,전단지
3	민숙	16	9개월	양육 결정	백수 (20세,9개월, 교제중)	부:택배기사 모:미싱공장	고2자퇴 (임신이유)	5회	고깃집 서빙
4	윤미	18	출산 후	입양	소년원 (2년, 헤어짐)	부:건축업	고2자퇴 (임신이유)	30회	식당, 패스트푸드 홀서빙
5	소희	19	7개월	입양 계획	영업직원 (20세, 3년반, 교제중)	부:무직 모:삼성반도체	고졸	5회 이상	패스트푸드점
6	유정	19	9개월	양육 결정	교도소(19, 1년, 교제중)	부:건설 모:식당	고1자퇴 (임신이유)		편의점
7	수미	18	9개월	입양 생각	소평물(25세, 2년, 헤어짐)	모:가게 (이혼)	고1중퇴	없음	편의점
8	슬기	17	9개월	양육 결정	택배(20세, 1년, 교제중)	부:토목 모:식당(별거)	중졸	3회이상	분식점, 패스트푸드
9	수연	18	출산 후	입양 보냄	교도소(19세, 1년반, 교제중)	부:무직 모:인력	고1 자퇴	2회	분식집
10	선미	19	4개월	미결정 상태	대학생 (26세, 6개월, 헤어짐)	부모 이혼,사망	고2 자퇴	3회	생산직
11	민지	19	9개월	양육 결정	(20세, 1년, 교제중)	부:회사	고2	5회	홀서빙
12	지영	15	9개월	고려중	원조	부:농업	중휴학 (임신이유)	2~3회	원조교제
13	선인	19	9개월	입양	게임방(20세, 3년, 헤어짐)	부모(이혼)	고2퇴학	2회	롯데마트
14	애경	17	9개월	입양 결정	고3학생 (19세, 1년반, 교제중)	부:노동	중1(중졸검정 합격)	2회	미용실
15	소영	19	6개월	입양 고려	대학생 (연락안됨)	모:식당 (이혼)	고2자퇴	2회	주유소, 전단지

2. 연구방법: 질적 연구(심층면접)

기존의 십대임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혼모 실태와 임신발생 요인에 주목하는 양적 방법론 위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계량화된 분석은 미혼모를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미혼모가 임신을 하고 모성을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겠다. 1990년대 이후 미혼모연구 방법론은 미혼모의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질적 연구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미혼모 경험의 맥락을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십대들의 경험(욕구, 느낌, 행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스스로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이들의 패턴과 언어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행위의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Schofield, 1994).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십대미혼모 자신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위치하는 사회적 맥락들을 모색하고자 시설에 거주하는 십대미혼모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면접은 2007년 8월에서 2008년 3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각 개인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상의 경우 2차 면접을 시도하였다. 면접한 내용은 모두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하였고, 녹음내용은 녹취작업을 통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은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참여자가 행위를 둘러싼 맥락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십대미혼모의 관점에서 임신경험의 사회적 구성 방식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십대미혼모는 15-19세의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을 한 십대여성을 의미하며³⁾, 임신경험은 십대후반기에 있는 여성이 결혼 밖에서 임신을 하고 임신을 유지

3)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청소년미혼모'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24세 연령대를 포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십대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대미혼모

하는 과정에서의 임신에 대한 인식, 태도, 행위 등을 의미한다.

IV. 임신경험의 사회적 구성

1. 저소득층 가족문화

1) 탈전형화된 가족경험

십대미혼모의 가족경험 서사는 주로 가족형태, 가족 내 젠더역할, 자녀에 대한 가족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들의 가족형태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일정한 가족형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가족 내에서도 부모가족에서 부자가족으로 또 모자가족, 조손가족 등 수차례의 변동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조사 당시 부모가족 4사례, 한부모가족 9사례로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으로 인한 부자 또는 모자가족이 대다수였다. 이중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많은 이유는 이혼율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⁴⁾. 반면 재혼가족은 한 사례로 이혼한 가족이 재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이것은 특히 부자가족의 경우 자원이 없는 남성의 재혼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계층변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전형적인 핵가족 성별분업형태가 와해되고 2인 생계책임자구조 또는 여성(엄마) 생계책임자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흔히 저소득층 가족연구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개념역시 혼인중심적이고 낙인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로 십대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맥락에 따라서 십대미혼모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 4) 기존의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모자가족, 부자가족이 갖는 편견을 지양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명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십대 여성이 아버지와 사는 경우,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의 가족경험이 매우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부모가족(소희, 유정, 민숙, 수연), 이혼,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족(미수, 상영, 윤미, 수미, 슬기, 소영, 지영, 민지, 애경), 재혼가족(선인), 부모사망으로 인한 조손 가족(선미)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에서 기혼여성들의 생계유지형 취업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김경애, 1999). “겉으로 볼 때는 아빠가 가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집 가장은 엄마예요”라는 수연의 서사는 저소득층 가족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의 해체를 말해준다. 즉 생계책임자인 남성, 가사전담자인 여성이라는 핵가족 역할분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소희와 수연의 서사에서 엄마의 존재는 일하는 ‘가장’으로서, 밤늦게 귀가하거나 들어와서도 바로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바쁘고 보기 어려운 사람으로 위치한다.

엄마는 바빠서 보지도 못해요. 새벽에 왔다가 다시 새벽 5시나 6시에 나가세요(소희)

아빠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니까 항상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엄마는 일을 다니시니까 들어오면 자고 아침에 일 나가시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지낼 시간은 일요일 밖에 없어요. 아빠는 교회를 안다니시고 엄마랑 교회를 가는데 같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요. 항상, 나이가 다르니까. 아빠는 당뇨도 있으시고 간경화도 있고 꽤 오래 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빠가 가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집 가장은 엄마예요(수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족문화의 특성으로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양육문화는 부정확한 현실인식과 낙관주의적 경향, 공부에 대한 불개입과 독립적 태도, 자녀의 장래와 관련하여 높은 성취목표를 주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신명호, 2003)⁵⁾. 즉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학력주의보다는 능력위주의 가치관에 따라 학력자본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미의 서사는 바로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교육접근 전략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입시위주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과는 달리 자녀교육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5) 한편 대조적인 중산층 양육문화의 특징으로는 학력자본의 획득실패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 학력자본의 가치에 대한 등급화(서열화), 전문직 화이트칼라 직업의 가치를 강조하고 목표의식을 유도, 자녀의 학업에 대한 철저한 개입전략(지속적인 성적확인관 관리, 말과 행동으로 학습의욕 자극하기, 강압적인 공부시키기와 통제, 정보수집과 판단), 결과적으로 자녀를 순치시키는 강압적 개입전략 등을 들고 있다.

보이는 것이다. 대학진학을 고려했던 소희는 아버지의 반대와 학령기 동생들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접고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족의 학력자본에 대한 가치약화와 아울러 젠더차별적인 생존전략과 연결된다. 생계가 어려운 가족에서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딸들의 진학포기와 취업에 대한 요구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동거와 가출밖에 없는 것이다(이미경, 1999).

처음에 가출하기 전엔 그런 생각 했었는데. 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하니깐 그게 더 속상해갖고.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다른 집 같으면 성적표나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신경도 써주고, 시험공부 할 때도 잘 하라고 말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주니까 더 빼뺏어져요(선미)

대학교도 안 보내줄려 그랬어요. 아빠가 대학교 가봤자 어차피 돈 버리는 짓이래요. 저 회가요. 동생이랑 3년씩 차이가 나요. 제가 대학교를 가면 아래 있는 동생이 고등학교를 가고요. 그 아래 동생이 중학교를 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딱 그 날이 왔던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는 애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소희)

학벌사회, 학력중독 현상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은 저소득층 가족경험과는 분리되어있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학생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인재, 2006). 이렇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국의 저학력 저소득층 집단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믿음, 사고방식, 태도와 같은 성향체계는 사회구조가 내면화되어 경험적으로 습득된 계층경험이며,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라고 볼 수 있다(신명호, 2003). 즉 부모세대의 계층경험의 반영으로서, 이러한 체화된 경험이 자식들에게 투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해석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력저하 원인을 부모역할 부재, 개인청소년의 일탈 등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인식 틀과는 달리 개인들이 위치한 사회적 조건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들 가족에서의 규범 구속력도 매우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미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미의 어머니는 딸의 동거관계

를 허용한다. 남자친구와 살고자 하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등 자녀에 대해 매우 독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론 동거를 허락한 맥락이 딸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이유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가족규범, 성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쯤에 오빠를 만났어요. 집이 서울이니까. 저는 부천이고 이러니까 두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한번 만나러 갔다 오면 거의. 그 다음날 학교 가기도 뭐하고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꾸준히 학교에 갔는데, 나중에 오빠가 오고 이러다보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갖고 엄마가 오빠를 집에다 데려다놓으면 애가 학교를 갈래나 해서 오빠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 왔어요. 오빠네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가지나요. 안 가져갔고. 엄마가 오빠한테 얘기해 갖고 같이 살게 됐어요. 엄마도 아프시고 해갖고 가게 차렸는데 장사하신다고. 어떻게 옛날 아는 분을 만나셨나 봐요. 엄마는 그 분 댁으로 들어가시고 저랑 오빠랑 둘이 살게 됐죠(수미)

이러한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는 딸의 가출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수연의 경우 가출에 대한 아버지의 통제는 처음 가출했을 때로 제한된다. 가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가족대응은 가출행동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용인하는 식의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가족의 통제력과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연의 아버지는 18세로 미성년자인 수연의 혼인을 허락한다. ‘니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아버지의 결정은 임신한 수연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딸을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젠 하도 집을 나오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아빠가 ‘나가면 어디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가출은 두 번 했다면서?) 한 번은 되게 많이 찾으셨는데. 그 다음은 오래 있었으니까 별로. 아빠는 나보고 니가 내년엔 혼인신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빠는 남자친구를 일 년 넘게 사귄 건 알아요. 니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수연)

이러한 가족의 무관심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지와 슬기는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을 매개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개별세계와 접촉한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거나 파트너의 자원에 기대는 방식으로 삶을 기획하는 것이다. 십대가 보호되어야 하는 미성년 지위로서 간주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저소득층 가족문화에서 이들 십대들은 자립해야 하는 존재로서 기대된다. 민지의 서사는 십대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위치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슬기는 엄마가 자신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슬기는 엄마의 도움없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시설을 나가서 아이 아버지와 같이 살 계획을 하고 있다.

(아이양육하면 집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제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래요. 집도 경제적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민지)

애기 낳고 나가서 방 잡고 살려구요. 이제 방 알아보고 다녀야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니?) 엄마는 웬만하면 안 도와줄라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빠 일하는데 있으니까(슬기)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가족의 자녀돌봄 의무기간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인구 변화 추이와는 달리, 저소득층 가족에서의 십대자녀의 위치는 가족 안에서 보호되는 존재이기보다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간주된다. 자녀에 대한 가족 개입은 최소한으로 즉 학력, 성공 등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족의 빈곤한 자원과 결부되는 것으로, 이런 배경에서 십대자녀들은 다 키운 자식으로, 혼자서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위치된다.

2) 십대여성의 탈가족적 지향: 가정폭력, 젠더역할로부터 벗어나기

십대미혼모들의 가족서사는 많은 경우 이들의 가출동기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부모의 갈등과 별거, 아버지의 폭력, 젠더역할 불만 등으로 나타난다. 부자가족인 지영은 아버지의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지영의

가출은 일종의 피신으로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이기도 하다. 언니와 오빠가 독립해나가면서 아버지의 폭력은 집에 있는 지영에게 집중되고 따라서 지영에게 아버지가 있는 집은 살기위해 피해야 되는 공간인 반면 동네와 학교가 피난처가 된다.

가출은 두세 번 정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빠가 맨 날 때려가지고. 부엌 제대로 안 치운다고 맨 날 부엌살림 엮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의자로도 때리고, 서랍 같은 거 빼서 때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리니까 잘못하면 언니와 오빠 때렸는데 지금은 저도 컸으니까. 이제 언니는 사회생활하고 집나가고 오빠도(언니랑 같이 살면 되잖아?) 언니가 싫어해요. 집에는 저랑 아빠만 살아요. 맨 날 술 먹고 때려가지고 아빠가 계속 때릴라 그러니까 도망 나왔어요. 집 나와서 그냥 동네에 있다가 아침 되면 학교 때문에 그냥 다시 들어가고.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계속 다른데 숨어 있다가 아빠가 어디 갔을 때 들어가고 그랬어요(지영)

이렇게 십대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은 안정감과 친밀성, 그리고 돌봄이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다. 대신 아버지의 일상적인 폭력으로 피신해야 되는 공간이거나,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거나, 같이 있어도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십대여성들은 가족 내 부재한 어머니를 대체한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담당자로 위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십대여성의 젠더역할은 전통적 성별 분업에 의한 어머니 역할로서 주로 가사노동과 형제, 조카 돌보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할대체는 십대여성들의 욕망과 대치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심지어 이것은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애경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같이 사는 부자가족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집안일을 다 했다고 강조한다. 미수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등의 집안살림 경험을 답답함으로, 그리고 친구들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계기로 인식한다.

집안일은 제가 다 했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빠 밥 해놓고 그런 거 제가 다 했어요. 그 전에는 아빠가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터 했어요. 청소 같은 거는 동생도 해요(애경)

제가 집안일 하는 것 때문에 놀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 거구요. 제가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랑 못 놀잖아요. 수업 끝나면 친구들은 다른 애들 만나서 같이 놀러가고 오락실가고 노래방 가는데, 저 같은 경우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방청소하고 이래야 되니까. 동생도 어리니까 내가 동생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너한테 너무 큰 짐이었어?) 네. 거의 그것만 해도 5년 정도. 8살 때부터 했어요. 일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미수)

가사노동이외의 어머니 노릇은 주로 식구수발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병수발을 하거나 친척, 조카, 동생 등을 돌보는 일로 이것 역시 십대여성들의 역할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 즉 엄마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린 동생과 사는 경우, 그리고 삼촌, 이모, 할머니 등과 같이 동거하는 가구에서 십대여성들은 돌봄노동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데, 즉 집에 남아있는 어린 동생, 조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안일과 가족돌봄의 책임은 십대여성들로 하여금 친구들과 ‘놀고자’ 하는 욕망을 차단시키는 것으로, 가출이외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간파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 젠더역할에 내재된 불만이 가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가출이 반드시 이러한 가족 내 요인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가족 내 요인에 기인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등 가족 밖의 현실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집과 학교가 싫어서, 부모나 가족폭력, 부모와의 갈등, 일시충동, 부모의 이혼과 재혼, 놀고 싶어서, 돈 벌려고 등의 이유로 가출한다(조화래, 2002). 이렇게 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 학교요인 등 가족 내 외적 요인과 개인의 욕망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영의 서사는 이러한 구조를 잘 드러낸다.

내가 집안일 다해야 되고 놀고는 싶은데, 집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돈도 없고 일도 하고 싶고 학교도 가기 싫고 이러니까(상영)

여자청소년의 가출이 남자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현실은⁶⁾ 이러한 십대여성을 둘러싼 가족, 학교, 노동시장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족이 삶의 안전망으로 지속적으로 삶의 재생산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십대여성들은 가족/비가족 형태를 넘나들게 된다(민가영, 200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십대여성들의 탈가족적 지향이 나타나는 배경은 가족이 더 이상 자원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기도 하지만 집을 떠나도 살 수 있는 물적 토대, 즉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노동시장의 변화(서비스 산업의 확장)

1) 삶의 자원이 되지 않는 학력자본

1990년대에 들면서 자본이 만든 새롭고 광활한 소비공간의 유혹 속에서 십대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으며, 졸업장도 전처럼 그렇게 막강한 힘을 휘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조한혜정, 2000). 즉 아이들 다수는 학교생활을 삶의 일부로만 간주하거나 굳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하였는데, 중,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퇴를 경험한 이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이 지극히 억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로 이것은 학교생활, 학교규율 체계의 비합리성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수연의 서사는 학교생활에서의 억압적인 경험을 재현한다. 수연에게 학교규율은 ‘어이가 없는’ 것이거나 ‘옛날방식’이고 권리침해로 인식된다. 그래서 수연에게 학교는

6)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에서의 젠더차이는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여자청소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출소녀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여학생의 가출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김성경, 1997). 구체적으로 전국 23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출 청소년의 젠더 비율을 보면 여학생이 68.7%, 남학생이 31.3%를 차지하여, 가출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조학래, 2002). 주로 가출은 16-17세가 42.3%를 차지하여 십대 중반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이 증가하는 시기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의 1990년대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변동하의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부산물로서 특히 서비스 산업의 증가라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여성, 십대여성들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출한 여성들의 생활유지가 가능하게 된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출석거부 등 저항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이렇게 학교규율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인식과 함께 처벌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까지 연장되는 즉 이중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신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한다.

공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빼먹고, 학생과를 많이 갔어요. 엄마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짹짹 빌어서 엄마는 안 불러갔어요. 학교에서 잡고 있는 것도 싫었고 간섭하는 것도 싫었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끼어드는 게 싫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 선생님이 안 된다고 반대할 때도 싫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단체생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수로 있는 건 좋아하는데 몇 백 명, 몇 천 명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그 많은 사람을 단 몇 가지 규칙으로 묶어 놓는다는 게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싫어요. 학생들 머리 자르고 이런 것도 싫었어요. 난 머리는 죽어도 안 잘랐어요. 선생님이 가위를 갖다가 험박해도 안 잘랐어요. 옛날방식을 너무 강요하니까. 지금시대가 어느 뎀 데 머리를 갖고 이러나 그랬죠. 법으로만 인권침해 그런 거 만들어놓고 그런 거 정작 학생들 머리 잘리는 것에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은 색깔 다른 것 때문에 논쟁하면서 학생들이 머리 잘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중학교 때도 학교 많이 빠졌어요. 일부러 아프다고 하고 학교 안가고 놀러 다니고, 집에서 자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어요(수연)

이러한 학교에 대한 회의와 부정은 많은 경우 비합리적인 학교규율, 성적위계 등 내적 요인들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의 유혹도 중요한 영향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일부는 학교생활과 노동시장을 병행한 경험으로 인해 학교는 더 이상 이들에게 흥미있는 공간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학교졸업장이 현재의 답답한 학교생활을 견딜 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간과는 구태여 싫은 학교생활을 연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적절한 보상이 따랐지만, 현재는 빈곤가정의 경우 학교생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신명호, 2003).

민지는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학교를 견뎌내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러한 판단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작동시키는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보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것은 이들의 평균화된 삶속에서 지배적 삶의 양식을 위해 더 이상 현재를 유예시키기를 원치 않고, 또한 사회적 지배규범에 자신을 훈육시킬 필요성을 상실함을 보여준다(민가영, 2008). 더구나 학력자본에 대한 약한 기대는 이들의 학교공간에서의 분리를 가속화시킨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학교가 별로 싫었어요. 학교 안 나온다고 부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었구요. 학교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학교에 앉아 있는 게 싫고 돈 벌러 다니고 싶었어요(민지)

이들은 학력보다는 능력주의적인 사고에 더욱 친근하며, 또한 장기적인 삶의 전망을 위해서 현재를 유예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중산층에게 학력은 미래를 위한 담보가 되지만, 저소득층 문화에서 학력은 탈빈곤 등 구체적인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의미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조기 노동주체로의 등장: 학생, '사회인' 사이의 경계 넘나들기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고용증가로 연결되었다⁷⁾. 특히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들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장경섭, 2006).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가족 내부의 특성, 즉 빈곤, 어머니일의 대체, 빈번한 아버지의 폭력 등에 대한 이들의 저항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십대여성들의 탈가족적 저항은 이들로 하여금 가족을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7)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연적 축적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남성 노동자에 집중한 노동 과정을 더욱 확장하여 여성노동을 산업내부로 이동시킨다. 주로 소매, 세일, 서비스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용되는 것은 여성들이며(Clement & Myles, 1994). 이러한 여성 고용의 증가는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십대 여성들이 자발서비스 노동을 경험하는 기회 증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 경험은 십대들의 삶의 형태와 방식뿐만 아니라 정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족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이들이 주로 관계맺는 것은 ‘알바’ 시장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를 중간에 단절하고(일부는 임신으로 인해 자퇴를 하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경우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⁸⁾ 이들의 지위는 가출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거나, 가출과 동시에 학교를 단절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로 학생신분이기도 하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용수요의 증가는 미성년자인 십대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무엇보다 십대여성들은 서비스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의 형식으로, 일시적, 저임금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민숙은 십대들의 노동시장이 한정되어있으며, 즉 업종, 노동시간, 임금에서의 차별을 강조한다. 가출한 십대들은 친구 집에 얹혀사는 단기적 가출형태가 아니라, 주로 방을 잡아서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유지는 같이 생활을 시작하는 남자파트너와 생계노동공조에 달려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십대여성들이 혼자 ‘어쩔 수 없이 벌어야 하는 상황’, 즉 생존이 걸려있는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는 알바 같은 거해도 청소년보호법 이런 거해서 하루에 7-8시간 그 정도 밖에 일을 못하고 써주는 데가 없어요. 고기집이나 그런 데 힘든 데나 써주지, 성인은 술집, 고기집 다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피씨방, DVD방,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한정 데 있어요. 청소년아르바이트 구하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동네, 주로 고기집 서빙, 롯데리아는 시급이 작죠. 최저임금법 딱 그거에 따라서 3천 5백원 주고 고기집은 그래도 4천원, 4천5백원, 이렇게 주고, 저의는 고작 6시간, 7시간 일해 봤자 돈도 얼마 못 받고 40-50만원, 경제적 능력도 그렇고(민숙)

탈빈곤의 맥락에서 빈곤청소년의 고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제기되어 왔으나(신명호, 2003; 이인재, 2006),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 통제적 성격은 이러한 청소년의 생존

8)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중,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중학교 휴학 또는 자퇴(미수, 지영, 애경), 고등학교 자퇴(상영, 민숙, 윤미, 유정, 수미, 수연, 선미, 민지, 선인, 소영), 고졸(소희) 등으로 고등학교 1,2학년시기에 자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퇴 이유로 임신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우는 모두 4사례(민숙, 윤미, 유정, 지영)로, 이것은 임신과 학교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 자발적으로 자퇴를 한 경우와 학교로부터 자퇴가 강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표1 참조).

과 직결된 노동욕구를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노동시장은 양가적으로 작용하는데, 즉 ‘알바’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서 노동시장의 의미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미는 여전히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등학생으로서 보다는 ‘사회인’으로 정체화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오히려 선미는 사회가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더 낮설어한다. 이렇게 ‘사회인’으로 자기 정체화하는 것은 돈을 벌고, 소비하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식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bar)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선미는 주민등록증도 언제나 ‘빌리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금기와 허용의 경계를 넘나든다. 성산업의 경우 법적으로 십대들의 접근이 제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대여성의 경우 접근이 용이한 노동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일하는데 찾아보면 많아요. 민증 안 찾고 요즘은 다 다녀요. 민증도 필요하면 빌리면 되니까, 저도 바에서 일할 때 민증을 빌려서 했어요, 20살이 아니어도 술 먹고, 담배 잘 피우고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학교 안 다니니까 일반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면 토요일밖에 못 놀 구, 학교에 안다니면 일도 다니고 놀 수 있고, 돈 쓰러 다니구, 술 마시고, 옷 사러 다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선미)

이들은 임금을 벌게 되면서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잠재적인 독립수단을 확보(동거, 생활비 벌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파트너인 남자친구 역시 일하는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임금으로 사는 것도 매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들은 같은 또래거나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고용조건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⁹⁾.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경험은 십대여성들로 하여금 소비욕구를 충족시키

9) 우석훈은 그의 저서(88만원 세대)에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10대와 20대가 위치한 불균형성을 고찰한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청소년노동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승자독식의 게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세대내, 세대간의 경쟁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결과 10대들에게 가야할 것이 가지 못하는 일종의 세대 착취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편법이 난무하는 10대 알바시장의 무정부주의적 상태도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의 결과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사회시스템의 부재, 세대간 불균형의 문화적 성찰을 강조한다.

기도 하고,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노동시장은 십대여성들의 다양한 욕망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해방의 공간으로 위치된다.

3. 로맨스 문화

1) 연애와 동거생활

십대여성들의 로맨스는 근대의 로맨스 공식에서의 수동적인 여성성의 의미보다는 현대사회를 사는 십대여성들의 삶의 추구로서, 삶의 맥락 안에서의 십대여성들의 중요한 모험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Thompson, 1989). 십대여성들의 삶에서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곧 바라던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적인 행동을 미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규범과 금기를 삶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거나 규범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기든스, 1996). 로맨스의 의미는 주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데, 즉 가족, 학교가 더 이상 삶의 전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맨스는 십대여성들의 삶에 대한 추구(the quest-romance)로서 자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이성교제, 연애경험의 확산은 섹슈얼리티 경험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사춘기를 빠르게 경험하고, 연애주체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사회적 변화는 섹슈얼리티를 십대후반 청소년들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한다. 십대여성들에게 로맨스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한 친밀한 관계의 구성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을 벗어났거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십대여성들의 경우 남자친구는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자신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애경에게 남자친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돌봄제공자로서의 남자친구의 존재는 돌봄기능을 상실한 가족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가족 밖의 독립적인 생활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오빠는 그냥 착해요. 나한테 잘해주고, 그냥 잘 챙겨줘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다고 그러면 밥도 먹이고 먹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먹여요. 그리고 누구 괴롭히면 개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고, 집까지 데려다주고(애정)

한편 민숙의 서사는 로맨스가 제공하는 보상을 강조한다. 로맨스는 민숙의 삶에서 더할 나위없는 특별한 것이며, 희망, 지지로 위치된다. 따라서 남자친구와의 교제는 민숙에게 외로움의 보상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죠. 날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되게 좋고 든든하고, 여자랑 남자랑 다르죠. 남자한테 위로받는 거랑 여자한테 위로받는 거랑 다르죠. 남자한테 위로받는 게 더 좋지 않나? 더 든든하니까. 기대고, 기댈 수 있으니까. 남자라서 더 기댈 수 있잖아요. 여자는 내 친구도 약하고 나도 약한데. (뭘 기대는데?) 제가 여자애한테 나 오늘 슬프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애기 들어주고 그러는데, 제가 슬퍼서 애 아빠한테 울면서 그러면 왜 그러냐고 누가 울렸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든든하게 해주니까 그런 게 좋죠. 저는 학교 가야 되는데 애 아빠 보고 싶으니까 학교도 잘 안가고 그랬어요(민숙)

이들의 교제는 많은 경우 동거생활로 이어진다. 이렇게 ‘쉽게’ 동거로 연결되는 맥락은 이미 십대들의 로맨스 공식 속에 섹슈얼리티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동거생활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합의로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십대들의 로맨스에서 아주 흔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동거비율이 높고 이들 대부분은 임신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¹⁰⁾ 관계의 지속성

10) 연구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파트너(아이 아버지)와 동거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원조교제로 임신을 한 지영과 상대를 잘 모르는 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파트너와의 교제 중에 임신한 경우로, 특히 동거 중에 임신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다수가 임신인지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관계의 친밀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미혼모 연구에서 임신이 곧 관계단절의 이유가 되며, 무엇보다 남자 파트너의 임신부정과 낙태권유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임신이 관계단절로 이어지거나 관계유지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하거나, 아이와 더불어 관계가 재구성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을 보여준다. 사회에게 동거생활은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새로운 가족생활로 의미화된다. 하지만 십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러한 동거가족의 불안정성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서사에 드러나듯이 이들에게 동거는 가족보다 ‘편한’ 생활로 인식된다.

자꾸 집이 싫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한 명 없는 게 더 돈 안 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거생활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요. 집에서도 해방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 있어서 좋고, 단점은 돈이 모지랄 때 힘들다는 거 (둘이 살면 생활비 많이 들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둘 다 나이가 어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pc 방도 가고, 그런 돈을 많이 써요. 같이 노는데 돈을 많이 써요(사회)

이렇게 연애, 동거형식으로 드러나는 섹슈얼리티와 로맨스의 결합은 십대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관계를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변화는 임신, 모성인식의 변화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미의 서사는 로맨스 관계의 임신과 모성에 대한 의미구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좋아하는 사람의 애’라는 수미의 언설은 로맨스 관계에서의 자신의 임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당화가 곧 아이양육 결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십대에 임신하는 것이 좀 그랬는데. 오빠랑 살면서 임신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남자 쪽에서 막 책임 안지겠다고 하면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여자건 남자건 애가 생기고 하다보면 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임신한 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당연히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키우면서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수미)

이러한 성과 사랑의 결합이 강화되는 현상은 십대들의 새로운 친밀성에 대한 추구로서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족을 삶의 모델로 채택하는 것은 꺼리지만 정서적 헌신은 추구한다. 법이나 종교적 윤리를 통한 공적인 정당화나 압력이 없어도 안정적인 관계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이상이 되고 있다(백& 백- 계른샤

임, 1999). 말하자면 개인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확실성,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각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 결혼을 매개하지 않는 임신, 모성인식

이렇게 동거와 같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젊은 세대의 관계맺음 형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름 아닌 법적 결혼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구성해내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결혼이데올로기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임신, 모성이 결혼에 선행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즉 이들의 커플 관계는 결혼을 가정하는 관계일 뿐 섹슈얼리티, 임신, 아이육양 등은 굳이 결혼과 결부되지 않아도 별다른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하기보다는 관계와 생활이 보다 안정화된 이후에 시도하는 것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선미는 자신의 아이를 엄마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러한 선미의 결혼기피는 무엇보다 선미에게 잠재된 결혼인식에 기인한다. 선미에게 결혼은 바로 부모의 갈등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기억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신도 부모처럼 불행한 결혼생활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선미의 우려는 결혼이 환상이 아니라 만나기 싫은 현실로서 자리한다. 선미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거리두기가 '애생기고 나서'부터 더 확고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혼관계에서의 아이양육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구별되는 것이다.

결혼은 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애기는 엄마 앞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보니까 그걸로 하려구, 애 생기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제가 7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으니까, 맨 날 치고 박고 싸우는 것 밖에 못 봤어요. 또 엄마는 아빠랑 맨 날 싸우고 술 먹고, 아빠는 집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웬지 엄마아빠 자식이니까 안 그런단 보장이 없으니까(선미)

인터뷰 참여자들 대다수는 아이출산과 결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행복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수의 서사는 이런 맥락을 잘 보여준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키우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 아빠 없이 미혼모, 싱글 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심지어 양육은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가능하며, 다만 아빠의 부재는 조금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물론 미수에게 결혼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미수는 결혼 안에서의 아이출산과 양육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결혼관계외의 다른 형태에서의 양육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결혼 밖에서의 출산, 양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애기 낳는 문제는 꼭 결혼을 하고 안하고에 딸린 건 아니라고 봐요. 결혼을 해서 애기 낳으면 정말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그런 고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우선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되니까 아이를 가진 걸 거고 제일로 좋은 건 그게 제일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혼 안하고도 애기 엄청 훌륭하게 잘 키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아빠가 있으면 애한테는 좋겠죠. 없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기가 사춘기 때 방황은 안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다 방황은 할 거고, 조금 더 심하다고 해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키우는 거죠. 엄마가 계속 사랑으로 대한다면 엄마 혼자만이라서 시간이 더디 걸리거나 좀 더 많이 힘들겠죠. 아빠가 있을 때보다는.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 견뎌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미혼모에서 애기가 엄청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사는걸 보면(미수)

한편 소영에게 결혼은 장기적인 삶의 과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애편당이 결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을 욕망하면서도 파트너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은 결혼과의 거리두기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남자파트너에 대한 불신 즉 결혼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정도의 신뢰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무리’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결혼이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젊은 아이들의 연애편지처럼 결혼도 쉽게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들의 현실적 이해 속에서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당위나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십대의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애는 키울 수 있어도?) 네.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애는 결혼 안한 상태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남자가 같이 키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기를 키우다가 나이도 젊은데,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데요. 일주일 사귀다 깨지고, 하루 사귀고 깨지고. 그런 거 보면 결혼은 무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혼해서 다시 이 사람이 새 아빠다 그러면 애기 나중에 커서 호적이라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싫을 거예요. 저도 싫은데. 분명히 싫을 테고(소영)

이렇게 근대 낭만적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은 십대여성들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혼과 분리된 성과 사랑의 결속이라는 이들의 새로운 로맨스 관계의 구축은 섹슈얼리티, 임신, 모성에 대한 의미를 사회적 금기가 아닌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가족과 학교를 벗어나 있거나 속해있어도 구속력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노동주체, 로맨스주체로 등장하는 십대여성의 위치는 임신, 모성에 대한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을 다르게 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V. 결론: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십대미혼모의 삶의 조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임신경험 구성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이들이 속한 사회적 조건 즉 저소득층 가족문화, 노동시장, 로맨스 문화의 맥락과 임신경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저소득층 가족문화는 가족집단의 규범적 강제가 약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역할이 와해되고, 노동빈곤으로 인한 가족경제는 십대여성들을 포섭하기보다는 개인화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규범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이들의 조기노동 주체로의 등장은 탈가족의 물적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새로운 친밀성의 관계를 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성과 사랑의 결합이 강조되는 이들의 로맨스의 추구가 연애, 동거생활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는 분리된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십대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의미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십대임신이 더 이상 사회적 금기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결혼이 이러한 임신을 합법화하는 통로라고도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임신은 로맨스의 결과로서 간주되는 한편 따라서 그 의미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십대들의 제한된 사회적 자원과 임신의 의미구성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임신에 대한 의미화, 정당화가 가능한 맥락은 이들의 양육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것은 입양을 선택하더라도 미혼모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미혼모담론이 도덕적 접근에 치중함으로써 미혼모의 일탈을 강조하는 한편, 일탈예방으로서 미혼모의 성, 피임지식 부족 등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십대 섹슈얼리티, 임신의 지식체계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십대여성의 임신이 탈맥락적인 '문제'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준거해서 구성된 경험으로, 십대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이것에 대한 십대들의 대응이라는 복합적 구성물이라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개인주체를 문제화하기보다는 이들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문제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미혼모정책의 방향역시 이들의 임신경험이 중층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라는 인식하에서 십대집단 내 차이, 십대여성의 욕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 문화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문화과학사
-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 여성학, 제15권 제2호
- 김은희(2003). 쉼터에 거주하는 십대미혼모의 희망체험-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전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2006).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승미(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민가영(2008).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십대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영미(2001). 청소년미혼모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10권
- 신명호(2003).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와 빈곤, 제62호
- 앤서니 기든스(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시티즘, 새물결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매우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 윤미현·이재연(2000). 십대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1권 4호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이론신서
- 이종화(2005).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이인재(2006).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탈빈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 장경섭(2006). 청소년기의 사회각축장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과 청소년, 가족과 문화,

제18집 제4호

- 조학래(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연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조한혜정(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하나의 문화
- 주숙남(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천혜정(2002). 미혼모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성과 임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 한진숙(2001).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체험연구,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Clement Wallace & John Myles. (1994). *Relations of ruling class and gender in postindustrial societie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Jacobs, Janet L. (1994). Gender, race, class, and the trend toward early motherhood,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 22 No. 4
- McRobbie, Angela. (2000). Teenage mothers: a New Social State? *Feminism and Youth Culture*, London: Routledge
- Scofield, Gillian. (1994), *The youngest mothers*, Ashgate Publishing Company
- Thompson, Sharon. (1984). The search for tomorrow: On Femin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Teen Romance, In Carol Vance, ed. *Pleasure and Danger*, London: Routledge
- Thompson, Sharon. (1995), *Going all the Way*, Hill and Wang
- Walkerdine, Valerie, Helen Lucey & June Melody. (2001). *Growing up girl*,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Construction of Teenage Mothers

Suh, Jung-Ae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al contexts of teenage mothers' experience construction in pregnancy. The experiences are constructed through the social conditions to which they belong and respond. These conditions are closely related to family, the labor market, and notions surrounding romance. The family is not a space providing simple protection and care any more; rather, it is a place in which they want to escape from a father's violence and experience mothering. They do not recognize school as a something which can be of benefit to their lives either. On the contrary, the labor market provides the physical and emotional bases upon which freedom and independence are formed and opportunities for romance are afforded. The social contexts provide pregnancy with the justificati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ggest a number of invaluable policy implications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gender/class differences among teenage groups and their limited social resources.

Key Words : teenage mother, pregnancy experience, construction

투고일 : 12월 15일, 심사일 :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

*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